

# 전상현의 '전상현 찾기'

KIA, 뒷심 싸움 역할 막중... "부상 없는 100%가 목표"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전상현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2023시즌을 앞두고 KIA는 좌완 풍년에 웃었다. 고된 시즌 좌완 불펜진이 풍성해지면서 엔트리 구성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좌완 고민이 사라지자 우완 고민이 생겼다.

개막 엔트리에서도 8명의 불펜진 중 우완은 임기영, 전상현, 정해영 3명 뿐이었다. 강속구를 뿌릴 수 있는 우완이 올 시즌 KIA 불펜의 숙제가 됐다. 특히 뒷심 싸움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전상현의 역할이 막중하다.

전상현의 시범경기는 격정 반 기대 반이었다. 3월 21일 LG와의 경기에서 3실점은 했지만 남은 5경기에서는 무실점으로 1승 3홀드를 수확했다.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부분은 만족스러웠지만, 스피드에 대한 걱정은 있었다.

여러 시선 속에 전상현은 일단 기본 좋은 출발을 했다. 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1.1이닝을 소화하면서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기도 했다.

전상현은 지난 캠프부터 시범경기까지 '전상현 찾기'에 집중했다.

전상현은 "캠프 때부터 준비한 게 부상 당하기 전의 모습을 찾는 것이었다.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나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졌던 것 같다"며 "작년에 좋았을 때도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부상 당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포커페이스로 위력적인 구위의 공을 던지면서 전상현은 한 때 마무리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년 부상에 시달리면서 전상현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왔다.

전상현은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좋았던 모습들이 틀어졌다. 좌완의 선배 기사를 봤었는데, 선배님도 부상을 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틀어졌다"고 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다. 하나하나씩 미세하게, 조금씩 몸이 변화했던 것 같다"며 "의식은 안 했는데 아팠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뇌가 기억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이 이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매커니즘을 가져가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상현은 좋지 않았던 기억을 털어내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체'에 신경을 썼다.

전상현은 "일단 하체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하체가 되어 팔꿈치나 어깨 부상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니까 거기에 중점을 뒀다. 밸런스 운동, 하체 운동



전상현

에 신경 썼다. 공 던질 때 중심 이동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즌 목표 역시 '부상 없는 100%'다. 전상현은 "100%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단 첫 번째로 부상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건 똑같이 하고 변화를 안 주려고 했다. 예전 모습을 찾는 것만 되면 다른 걱정 없다. 옛날 영상을 매일 보고 있다"며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몸이 더 단단해야 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금씩 100%를 향하겠다는 전상현에게 탄탄해진 불펜 전력은 힘이 된다.

그는 "작년 보다 훨씬 불펜이 많이 좋아졌다. 집중력도 생기고 경쟁도 하게 된다. 나도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한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 팀이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예을 기자 wool@kwangju.co.kr

# 김하성 9회말 끝내기 홈런 '시즌 1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신고했다.

김하성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치른 홈경기에서 9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해 4-4로 맞선 9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 애리조나 우완 스코트 맥고프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스탠드로 향하는 극비이 홈런을 쳤다.

김하성의 시즌 첫 홈런이자 빅리그 통산 첫 끝내기 홈런이다. 2021년 MLB 진출 후 김하성의 통산 20호 홈런이기도 하다.

샌디에이고는 3-3 동점인 9회초 예전 통고리아에게 1점 홈런을 내줘 3-4로 뒤집힌 채 마지막 9회말 공격에 들어갔다.

볼 밸런 샌디에이고 감독은 9회말 시작과 함께 대타 데이비드 달을 내세웠고, 달이 좌중간 담을 넘기는 동점 솔로 안타를 그리자 팻코파크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다.

곧바로 김하성이 타석에 들어섰다.

2회 3루수 땅볼, 4회 투수 앞 땅볼, 7회 1루수 파울 플라어로 침묵하던 김하성은 볼 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떨어지지 않고 맛있는 슬라이더가 들어오자 번개처럼 방향이를 돌렸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가 빠르게 왼쪽 담 너머로 날아갔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극적인 역전 끝내기 대포에 힘입어 5-4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다.

김하성은 시즌 타율 0.385(13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이 홈런으로 김하성은 시즌 첫 타점도 수확했다.

경기 후 수훈 선수로 인터뷰 한 김하성은 "세 번의 타석에서 못 치다가 마지막 타석에서 쳐서 기분



김하성

좋게 생각한다"며 "상대 투수가 나를 불넷으로 안 내보내려고 생각해 작구 타이밍에 스윙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제와 함께 '물수제비샷' 김주형(왼쪽)이 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GC 16번 홀에서 타이거 우즈, 로리 매길로이와 함께 '물수제비샷'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주형, 우즈와 라운드... "꿈이 이뤄졌다"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아시아 선수가 우승한 첫 사례는 2009년 미국 프로골프(PGA) 챔피언십의 양용은이다.

이후 아시아 선수의 메이저 제패는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021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마스터스의 '그린 재킷'을 입으며 2호 아시아 메이저 챔피언이 됐다.

6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제87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먼저 임성재는 2020년 대회에서 더스틴 존슨(미국)에 이어 공동 2위에 올랐고, 지난해 대회에서도 공동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임성재는 첫날 단독 1위에 나서는 등 대회 내내 선두 경쟁을 벌이며 마스터스에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마스터스는 다른 메이저 대회와 달리 같은 장소에서 계속 열리기 때문에 올해도 임성재의 상위권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임성재는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

PGA 마스터스 대회 내일 개막

우즈·매길로이와 함께 연습

임성재 우승 '그린재킷' 욕심

터 마스터스를 보면서 그린 재킷을 입는 게 꿈이었다"며 "아직 한국 선수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하지 못했는데, 제가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내 보였다.

올해 마스터스 데뷔전을 치르는 2002년생 신예 김주형도 대회장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는 4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전 세계 1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1992년 마스터스 우승자 프레드 커플스(미국)와 연습 라운드 9개 홀을 진행했다.

우즈가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아무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주형의 투어 내 존재감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또 이어 세계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스코티

세플러(미국)와도 함께 연습한 김주형은 한국시간으로 4일 밤 11시 30분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초대됐다. 우즈가 김주형 바로 다음 순서로 기자회견에 나온다.

아직 마스터스에 나온 경력도 없는 김주형이지만 주로 우승 후보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 이 대회 역대 우승자들이 초청받는 공식 기자회견 대상자로 선정된 셈이다.

김주형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즈, 매길로이 등과 연습 라운드 장면을 올려놓고 '꿈이 정말 이뤄졌다'고 소감을 적었다.

이번 마스터스에는 임성재, 김주형 외에 김시우와 이경훈이 출전하고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미국)와 이민우(호주)가 나온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마스터스 개막을 앞두고 출전 선수 88명의 순위를 모두 매겼다. 골프채널은 김시우를 31위, 임성재 34위로 전망했고 김주형 37위, 이경훈 69위로 지목했다.

이 매체는 세플러의 대회 2연패를 예상했고, 매길로이도 2년 연속 준우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우즈는 35위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 KLPGA투어 롯데렌터카 오픈 내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6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스카이-오션 코스(파72)에서 개최하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은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KLPGA투어 대회다.

2023년 시즌 개막전과 두 번째 대회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과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이 지난해 12월 열렸기에 시즌 세 번째 대회지만 사실상 개막전이나 다름없다.

KLPGA투어는 롯데렌터카여자오픈부터 30개 대회를 치른다. 7월 중순 2주 휴식기를 빼고 11월까지 매주 대회가 열리는 대장정이다.

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상금이 내걸린 이번 시즌에 개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국내 최고 선수

들이 이번 대회에 총출동한다.

지난해 상금랭킹 2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 가운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로 무대를 옮긴 유해란을 빼고 모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이 두 달 가장 치른 전지훈련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판도를 가늠하는 풍향계다.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국내 1인자 박민지다. 박민지는 올해 상금왕 3연패에 도전한다.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하면서 해마다 6승씩 올린 만큼 박민지를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다. 박민지는 다만 이 대회에 4차례 출전해서 최고 성적이 공동 11위였다.

이소미는 롯데스카이힐 제주에서 유난히 강했던 만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소미는 2021년 우승, 작년 준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5승 가운데 3승을 제주에서 일궈고, 작년에는 2차례 우승을 모두 제주 강풍을 이기고 따냈다.

디펜딩 챔피언 장수연도 롯데스카이힐 제주와 궁합이 잘 맞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선수는 장수연밖에 없다. 그는 4번 톱10에도 올랐다.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과 PLK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지영과 이정민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을 받은 김수지와 신인왕 이예원, 그리고 모든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임희정도 눈여겨볼 선수다.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최강자로 꼽히는 린 그랜트(스웨덴)의 출전도 관심사다.

/연합뉴스